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48
OCT 23 2020

발간년월 2020년 10월 23일 (통권 제14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이주호 감사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하원, 광물 추출세 3.5배 인상안 의결
- '25년까지 극동항만 수용력, 1억 4천만 톤 예상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시행 5년, 그 이후
- 러시아, 핵추진 쇄빙선 '아르크티카'호 인도식
- 로스아톰, 2020년 NSR 물동량 3200만 톤 전망
- 카자흐스탄, 대규모 광물 탐사 프로젝트 착수

주요 통계

- 2020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하원, 광물 추출세 3.5배 인상안 의결

■ 러시아 하원 3차 심의에서 광물 및 비료 생산업체의 광물 추출세 인상안이 통과되었음a)

- 추출세 할증이 적용되는 광물은 칼륨, 인회석, 인광석, 염화나트륨, 네펠린, 보크사이트, 비철금속, 철광석으로 현재 적용 세율은 칼륨 3.8%, 금속광물 4.8%, 천일염 및 염화나트륨 5.5%, 인회석 및 인광석 4%, 비철금속 8%임
- 광물 채굴세 인상으로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 루살(Rusal), 포스가로(Phosgaro), NLMK, 세베르스탈(Severstal), 에브라즈(Evraz) 등의 광산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 다이아몬드, 석탄 생산업체는 제외될 전망이다
- 단, 개발단계에 있는 신규 프로젝트는 제외되며, 예외조건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매장량의 1% 미만을 채굴한다는 조건임

■ 상원 승인 시 러시아 정부는 '21년부터 연간 약 2,300억루블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a)

-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원유 약세 및 경기침체로 러시아 정부 예산이 향후 3년 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2021년 광물 추출세 3배 인상을 통해 세수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안톤 러시아 재무장관은 인상 대상인 광물의 현 추출 세율이 국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반면 러시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세금 인상이 투자 저하 및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회토류 국가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함

그림. 러시아 광물 수출 현황



자료: <https://www.interfax.ru/business/727260>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s://www.interfax.ru/business/727260>(2020.10.22. 검색)

25'년까지 극동항만 수용력, 1억 4천만 톤 예상

■ 향후 극동지역의 유망한 사업은 지역 석탄 생산량 증산 계획과 관련이 있음^{a)}

- 사하공화국, 하카시아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아무르 주 등 지방 정부의 각 대형 프로젝트마다 10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추가로 생산하고 수출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엘긴스코예(Elginskoye, 야쿠티야) 광산에서 채굴량을 2300만 톤 이상으로 증가될 계획임
- 석탄 채굴 및 가공 기업인 콜마르(Kolmar)는 이나글린스키(Inaglinskaya, 케메로보 주)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데니소프스코예(Denisovskoye, 야쿠티야) 광산 또한 석탄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임. 총 예상 채굴량은 1600만 톤임
- 석탄 채굴 및 가공 기업인 코울스타(Coalstar)는 베이스코예(Beyskoye, 하카시아 공화국) 산지의 노천 채굴장 2곳에서 석탄 생산량이 2500만 톤 증가했다고 발표함
- 무연탄 채굴 기업인 시반트라시트(Sibanthracite Group)는 여러 지역에서 광산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채굴량은 총 250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베리아 에너지(Siberian Coal Energy Company), 쿠즈바스라즈레즈우골(Kuzbassrazrezugol), 에브라즈(Evraz), TEPK과 같은 기업들의 개발 계획들을 고려하면, 극동 철도 노선을 따라 운송되는 총 채굴량은 2025년까지 1억 30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항만 개발과 해상 운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대표적인 예로 나호트카 항만에 위치한 나호트카 비료공장과 바이오 연료 및 가정용 화학 제품 생산 공장들을 포함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입주기업을 들 수 있음
- 하바롭스크 주에 소재한 바니노 항만의 콜마르의 터미널 1단계 건설이 완료되었는데, 터미널의 수용력을 점차 2400만 톤까지 증대할 계획임
- 연해주 항만인 보스토치니 항, 나호트카 항, 포시에트 항 또한 석탄 생산량 증대 계획에 맞춰 개발되고 있음
- 수호돌 항만에 새로운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며, 향후 5년 내로 수용력을 2000만 톤으로 증대할 계획임
- 시반트라시트의 포트베라(Port Vera, 연해주) 터미널은 2019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터미널의 수용력은 2000만 톤에 도달할 것임
- 이에 따라 극동지역 항만의 총 수용력은 2025년 1억 4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해주 지역 터미널은 2020~2022년에, 하바롭스크의 바니노 항만 터미널은 2023~2035년에 수용력을 늘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김세희 현장실습생, 부산대학교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5710/> (2020.10.21. 검색)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시행 5년, 그 이후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도입 5년 결과, 주택시장과 교통 인프라 활성화에 기여a)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연방법은 2015년 7월 13일에 승인되어 10월 12일에 발효되었음. 5년 동안 211개의 법안이 발효되어 극동 경제에 1560억 루블을 투자해 1만 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음
- 자유항 제도가 극동지역 주택 시장, 교통 인프라 및 생산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음. PrimaMedia에 따르면 현재 20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생겨났음
- 행정부와 전권대표부, 지역당국은 자유항 제도 관련 법률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에 따르면 연해주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입주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는 161개, 그 다음으로 입주 기업이 많은 사할린에 위치한 우글레고르스크주(Uglegorskii)와 코르사코프시에서 51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하바롭스크 변경 바니노와 사베트스카야 가반(Sovetskaya Gavan)에서 24개의 사업이 자유항 제도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자유항 제도로 추진 중인 유망사업- 주택건설, 서비스업, 물류·운송업^{a)b)}

- 자유항 제도는 극동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돕고 있음. 2020년에 보스토치니 루치(Vostochnyy Luch) 부동산 개발 회사는 “러시아 가족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으로 연해주에 있는 주택 단지를 위탁단지 조성에 착수했음. 전체 부지 면적은 11만 435㎡이며 2610명이 거주할 있으며, 위탁 비용은 1㎡당 3만 5000만 루블임
- 자유항 제도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90개 기업이 있으며, 약 18만5천㎡의 주택이 시공에 들어갔고, 이 중 185채의 아파트가 '극동' 주택담보대출로 2%에 팔렸음
- 두 번째 유망사업은 490개 사업이 40억 루블 이상 투자를 한 서비스업임. 3년 동안 최소 500만 루블의 자본 투자를 한 개인 사업가나 조직은 누구나 자유항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항 제도로 물류와 운송업이 발전하고 있음. 주요항만과 건설회사 267개 기업이 902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 이중 최대 규모의 물류사업은 면적 8천㎡ 이상에 이르는 하바롭스크의 아방가르드 생산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며, 하바롭스크 남부지역을 생산물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물류센터 얀코프스키(Yankovsky) 건설 작업도 착수했음

그림. 보스토치나 루치(Vostochnyy Luch) 주택 복합 단지



자료: <https://vlzu.ru/zhk-vostochnyj-luch/>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 a) <https://primamedia.ru/news/1008622/>(2020.10.20. 검색)
- b) <https://vlzu.ru/zhk-vostochnyj-luch/>(2020.10.21. 검색)

러시아, 핵추진 쇄빙선 ‘아르크티카’ 호 인도식

■ 러시아 22220 프로젝트의 첫 핵추진 쇄빙선 ‘아르크티카’ 호의 인도식 개최^{a)}

- 지난 10월 21일 러시아 다목적 핵추진 쇄빙선 아르크티카(Arktika)호의 인도식이 무르만스크항에서 개최됐음
- 아르크티카호는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로스아톰의 계열사인 원자력쇄빙선기업 아톰플롯(Atomflot)에 인도됐음
- 인도식에 참석한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는 쇄빙선 선대를 확대함으로써 북방향로(NSR)의 운송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키고, 유럽과 아시아 간 운송로로서의 국제 비즈니스계의 관심을 받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의 선두적인 입지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음
- 또한, 아르크티카호는 對러시아 제재 등의 악조건 속에서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쇄빙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러시아는 지난 2013년부터 노후화된 쇄빙선을 대체하기 위해 핵추진 쇄빙선 건조 사업 22220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아르크티카는 동 프로젝트의 첫 핵추진 쇄빙선임
- 22220 프로젝트에 따라 건조되는 핵추진 선박들은 해당 등급에서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선박임
- 아르크티카호는 최대 2.9미터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으며, 이외 사양은 다음과 같음
 - 길이 : 173.3 미터
 - 길이 : 34 미터
 - 엔진 마력 : 60 MW
 - 최대 속력 : 22 노트
 - 배수량 : 33,500 M/T
- 이번 인도식에 참석한 로스아톰 대표는 22220 프로젝트의 마지막 핵추진 쇄빙선 추코트카(Chukotka)호의 용골거치식이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으며, 가장 강력한 핵추진 쇄빙선 리더호도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곧 건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림. 아르크티카호



자료: RIA Novosti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a)<https://arctic.ru/news/20201021/985436.html> (2020.10.22. 검색)

로스아톰, 2020년 NSR 물동량 3200만 톤 전망

■ 2020년 북방항로(NSR) 물동량은 3200만 톤에 이를 전망^{a)b)}

- 러시아 로스아톰이 북방항로(NSR)의 2020년 물동량이 목표치 2900만 톤을 넘어선 3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NSR 물동량은 2007년 1070만 톤, 2018년 1800만 톤이었으며, 2019년에는 3150만 톤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1월~9월 사이 NSR 물동량은 2298만 톤에 이르렀으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5% 높은 수치임
- 지난 10년간 NSR 물동량 증가는 가즈프롬의 노비항 석유 프로젝트와 노바텍의 야말LNG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탄화수소 개발 프로젝트가 견인함
- 2019년의 경우 노비항과 야말LNG에서 각각 770만 톤과 1840만 톤의 물동량이 발생했으며, 이는 NSR 전체 물동량의 약 80%(2610만 톤)에 해당했음

■ 로스아톰, 2030년 NSR 물동량이 1억 1000만 톤 이를 것으로 전망^{a)b)}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NS 목표 물동량 8,000만 톤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웠지만, 로스아톰은 2024년까지 8,000만 톤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음
- 하지만, 2025년까지는 이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으며, 2030년에는 1억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지국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줄어들면서 NSR에서 非빙해선박 운항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러시아 북방항로 당국으로부터 쇄빙지원선 도움 없이 NSR를 운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LNG선 펙다(Phecda)호는 지난 10월 초 쇄빙선의 도움 없이 중국 상해에서 사베타항까지 운항함
- 미 국립빙성데이터센터(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 따르면 북극해 얼음 면적이 위성기록이 시작된 이래 2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노바텍은 북극 LNG 사업들이 가동되면서 2030년에는 연간 5700만 톤의 LNG가 NSR를 통해 수송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 중 약 80%(4600만 톤)는 NSR를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될 것으로 추정함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climate-crisis/2020/10/sea-ice-retreats-record-low-arctic-shipping-reaches-new-high> (2020.10.22. 검색)
- b) <https://www.highnorthnews.com/en/cargo-volume-northern-sea-route-remains-stable-32m-tons-2020> (2020.10.22. 검색)

카자흐스탄, 대규모 광물 탐사 프로젝트 착수

■ 카자흐스탄 자원부 장관은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카라간다 주의 신규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착수될 것이라고 밝힘^{a)}

- 현재 카라간다주의 광물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구리 매장지 51곳, 금 매장지 56곳, 납 매장지 32곳, 아연 매장지 28곳, 망간 매장지 36곳, 철광석 26곳으로 조사되었고, 구리의 매장량은 1200만 톤 이상, 금 262톤, 납 9백만 톤, 아연 1000만 톤, 철광석 7억 7500만 톤, 망간 광석 6억 3000만 톤으로 매장량을 공개하였음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카라간다 지역에서 12개의 광산이 추가되는 등 카자흐스탄의 광물 탐사 프로젝트는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

■ 카라간다주의 2021~2025년의 신규 지질탐사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국가 경제안보 및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a)}

- 새로운 첨단 기술의 도입과 지질연구의 효율을 높여 새로운 광구개발을 강화하고자 카라간다 주 지역에서 12개의 공동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임
- 프로젝트는 리오 틴토(Rio Tinto), 일디림(Yildirim)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과 카자흐스탄 국내 구리 생산업체인 카작무스(Kazakhmys)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2개의 금 사이트와 6개의 구리 사이트 및 희토류 금속과 폴리메탈은 각각 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됨
-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의 광물자원이 40~50년 이내에 고갈되기에, 인근 지역의 새로운 매장지 확장을 위해 지속적 광물 자원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주요 통계



표. 2020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3.9 (+4.6%)	6.2 (+2.7)	20.1	+3.9%
북극해	2.61 (-10.9%)	5.04(-9.9%)	7.65	-10.2%
발트해	9.57(-1.7%)	7.41(-6.3%)	16.98	-4.3%
아조프-흑해	9.16(+9.8%)	9.78 (-8.9%)	18.94	-2.1%
카스피해	0.3 (+28.4%)	0.4 (+7.7%)	0.7	+15.7%
합계	35.6(+2.9%)	28.8(-6.1%)	64.4	-2.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https://www.finam.ru/analysis/newsitem/gruzooborot-morskix-portov-rf-za-pervoe-polugodi-e-2020-goda-uvlichilsya-na-0-1-20200714-163526/>(2020.10.10. 검색)
- <https://www.finam.ru/analysis/newsitem/gruzooborot-morskix-portov-rossii-za-7-mesyacev-2020-g-umenshilsya-na-2-1-20200812-142218/>(2020.10.10. 검색)

표.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00,155.2	66,085.8	912.4	1,343.3	301,067.6	67,429.0
광물 제품	1,601,657.7	7,486.7	24,291.5	45,008.5	1,625,949.2	52,495.2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52,223.6	6,406.2	198.2	0	1,352,421.8	6,406.2
생고무 및 화학 제품	5,059.6	61,409.5	853.6	429.0	5,913.2	61,838.4
가죽원료, 모피 제품	0.0	1,020.3	1.6	0.3	1.7	1,020.6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2,419.3	7,832.3	424.8	43.1	92,844.1	7,875.5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0.1	33,472.3	27.8	118.1	17.7	33,590.5
금속 및 금속 제품	32,305.3	52,145.8	315.7	1,053.3	32,621.0	53,199.1
기계류	21,687.5	356,720.4	431.6	801.2	22,119.1	357,521.6
기타	67,833.1	50,040.5	39,737.5	233.7	107,570.5	50,274.2
합계	2,121,107.7	636,213.6	66,996.5	49,030.5	2,188,104.2	685,244.1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0.10.10.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0.10.10. 검색))

표. 2020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7	24.9	-	-	-	-	-	-	7.0	24.9	-	-
냉동어	95,989	112,615.2	1,038	2,129.9	40	38.8	-	-	96,029.3	112,654.0	402	1,097.1
연어류	1,590	7,422.1	-	-	0	0.0	-	-	1,590.2	7,422.1	-	-
넙치	525	2,654.5	-	-	-	-	-	-	525.3	2,654.5	-	-
가자미	1,272	838.0	-	-	-	-	-	-	1,272.1	838.0	-	-
가자미류	2,976	2,268.4	-	-	-	-	-	-	2,976.3	2,268.4	-	-
청어	14,939	10,584.0	-	-	0	0.0	-	-	14,939.2	10,584.0	-	-
대구	8,077	20,723.0	-	-	-	-	-	-	8,077.1	20,723.0	-	-
명태	51,393	49,098.7	-	-	0	0.0	-	-	51,393.1	49,098.7	-	-
농어	17	58.6	-	-	-	-	-	-	17.4	58.6	-	-
간, 곤이 (어란)	1,871	84,799.6	-	-	-	-	-	-	1,871.2	7,722.0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906	1,768.6	-	-	-	-	-	-	906.1	1,768.6	-	-
생선 필렛, 어육	7,305	21,324.0	82	270.1	36	81.7	-	-	7,340.5	21,405.7	0	0.0
건어, 훈제, 염장, 어분	33	193.4	98	569.0	0	0.0	-	-	33.4	193.4	195	1,055.9

갑각류	6,626	112,564.1	27	194.6	-	0.0	-	-	6,625.9	112,564.1	95	606.5
계류	6,180	108,965.4	-	-	-	0.0	-	-	6,179.9	108,965.4	-	-
조개류	3,488	8,411.6	-	-	1	2.0	-	-	3,488.7	8,413.5	-	-
가리비	458	882.4	-	-	-	-	-	-	457.7	882.4	-	-
오징어류, 문어류	2,810	6,055.4	36	184.9	1	2.0	-	-	2,810.2	6,057.4	38	217.6
수산 무척추 동물	431	2,187.6	-	-	0	0.0	-	-	431.2	2,187.5	-	-
해삼류	50	184.3	-	-	0	0.0	-	-	49.7	184.2	-	-
성게류	382	2,003.3	-	-	-	-	-	-	381.5	2,003.3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2020.10.10. 검색\)](http://dvtu.customs.ru/folder/230467(2020.10.10. 검색))